

「2016 원자력 CEO 하계포럼」 개최 원자력산업계 CEO 경영 현안 논의



2016 원자력 CEO 하계포럼에 참석한 주요 원자력산업계 경영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7월 8일~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6 원자력 CEO 하계포럼」을 개최하였다.

조선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의 회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원자력산업계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원자력 CEO 하계포럼에서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2016 에너지 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으며, 김상조 제주대 교수가 '조선왕실의 외척 대응법'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강연을 했다.

참가자 토론 세션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원자력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원자력 정책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원자력의 수용성 증대를 위한 소통 경험을 나누고 바람직한 소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력 CEO 하계포럼은 원자력산업계 경영진 간 현안 사항 논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강연 제186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제186차 원자력계 조찬강연회가 7월 15일 더팰레스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강연을 하고 있는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원자력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조찬강연회에서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기후 변화와 KEPCO의 신산업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와 인류의 역사, 기후변화, 저탄소 시대의 서막, KEPCO의 에너지 신산업 전략, 원전, 미래를 향한 과제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조환익 사장은 “앞으로 세계 산업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체제 이전과 이후로 나뉘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한전은 에너지 신산업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업(業)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 청정 미래를 열고 신산업 수출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세미나 개최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세미나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7월 20일 더케이호텔서울 본관 3층 대금홀에서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내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현황 파악과 원자력 이용 진흥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33개 기관에서 6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유수의 산·학·연 관련 원자력 분야 전문가 8명이 초청되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원자력 이용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원자력협회의 회장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이 특별강연을 하였고, 오후 세션에서는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사업화 추진 및 성과’에 관해 원자력 발전, 방사선융합, 원자력융합, 방사선의학 등 4개 기술 분야의 연구원들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표자 4명과 패널 2명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좌장 : 정운관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 이어졌다.

한국원산-스마트파워(주) 업무협약(MOU) 체결 SMART 해외 시장 진출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한국원산-스마트파워(주) MOU 체결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스마트파워(주)는 7월 20일 원산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SMART 수출을 위한 해외 원자력 전시회 참여와 로드쇼 공동 개최, 중소형 원자로 잠재 수요국 시장 조사 및 분석 정보 공유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PPE(건설 전 상세설계) 계약 체결로 시작된 SMART 해외 시장 진출을 이어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스마트파워(주)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SDA)를 획득한 중소형 원자로 SMART의 사업화와 수출을 위해 정부 지원과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로 2014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제31회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 개최



조석 한수원 사장 등 하계강좌의 강연진과 참석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산업회(한원협)가 주관한 '제31회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가 7월 4일~6일 3일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SK 게스트하우스 로즈룸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16개 원자력 관련 산업체 및 기관의 중견관리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좌는 '기후 변화 대처 시대의 원자력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로 국내 주요 원자력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와 지식 축적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1일차에는 「기후변화 대처 시대의 원자력의 경쟁력」(박구원 한국전력 기술(주) 사장), 「에너지 환경변화와 원전산업의 대응」(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수소경제와 원자력의 역할」(박군철 서울대 교수), 「알파고, 왜 무서운가?」(문병로 서울대 교수), 「국내의 안전해석코드 개발현황 및 미래」(조형규 서울대 교수), 「원자력 기자재 제조 경쟁력 제고」(김하방 두산중공업(주) 부사장) 등 강의가 진행되었다.

2일차에는 국내 원자력산업 관련 규제·진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대비 원자력의 경쟁력」(김응수 서울대 교수), 「국제 환경변화와 원자력 리더십」(백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장), 「친환경 분산 원전 기술」(황일순 서울대 교수), 「원자력의 남은 과제 '후행핵주기 사업」(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등 강의와 함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교육생 토론이 이루어졌다.

3일차에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세계적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독일 탈원전 정책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원자력의 지속가능 발전 방향」(황용석 서울대 교수), 「세계 연구용원자로 시장과 한국의 경쟁력」(심형진 서울대 교수),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병철 (주)미래와도전 대표이사)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하계강좌는 국내 주요 원자력산업체 및 기관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강의와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목표로 1986년부터 매년 여름마다 시행해오고 있다. 🍀